

東草市誌 1

I. 자연·인문 환경

正誤表

| | |
|----|---------|
| 1권 | I. 자연환경 |
|----|---------|

40쪽. 위에서 2째줄, 띄어쓰기

돌출되어있는 ⇒ 돌출되어 있는

44쪽. 위에서 3째줄, 아래에서 11째줄, 서술년도 2023년 6월까지 기준 반영 수정

2. 행정구역과 면적

행정구역이란 ~ 대한민국은 현재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7개 도, 2개 특별자치도로 편제되어 있다. ~ 속초시는 현재 2개의 특별자치도 중 ~

1) 속초시 행정구역의 변화

속초라는 ~ 일제 하인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지방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 도천면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로 이루었으며, 이 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

2. 행정구역과 면적

행정구역이란 ~ 대한민국은 현재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6개 도, 3개 특별자치도로 편제되어 있다. ~ 속초시는 현재 3개의 특별자치도 중 ~

1) 속초시 행정구역의 변화

속초라는 ~ 일제 하인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지방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 도천면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로 이루었으며, 이 중 중도문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45쪽. [표] 속초시 행정구역 변화 오류 수정

[표] 속초시 행정구역 변화

| 63년 시(市) 승격 | | 66년 동(洞)제 실시 | 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 장사동으로 편입 | 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북리 일부 실악동 편입 | 90년 사진동 장천동, 장사동으로 통합 | 98년 행정동 개편 |
|--------------------|-------|--------------|-------------------------------|---------------------------|-----------------------|------------|
| 속초리 | 1구 | 영랑동 | 영랑동 | 영랑동 | 영랑동 | 영랑동 |
| | 2구 | 동명동 | 동명동 | 동명동 | 동명동 | 동명동 |
| | | 중앙동 | 중앙동 | 중앙동 | 중앙동 | 금호동 |
| | 3구 | 금호동 | 금호동 | 금호동 | 금호동 | 금호동 |
| | 4구 | 금호동 | 금호동 | 금호동 | 금호동 | 금호동 |
| | 5구 | 청호동 | 청호동 | 청호동 | 청호동 | 청호동 |
| ~ | ~ | ~ | ~ | ~ | ~ | |
| 16개 법정리 11개 연합리 | 12개 동 | 13개 동 | 14개 법정동 13개 행정동 | 13개 법정동 13개 행정동 | 13개 법정동 8개 행정동 | |

출처: 속초시통계연보

⇒

[표] 속초시 행정구역 변화

| 63년 시(市) 승격 | 66년 동(洞)제 실시 | 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 장사동으로 편입 | 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북리 일부 설악동 편입 | 90년 사진동 장천동, 장사동으로 통합 | 98년 행정동 개편 |
|--------------------|--------------|-------------------------------|---------------------------|-----------------------|-------------------|
| 속초리 | 1구 | 영랑동 | 영랑동 | 영랑동 | 영랑동 |
| | 2구 | 동명동 | 동명동 | 동명동 | 동명동 |
| | 3구 | 중앙동 | 중앙동 | 중앙동 | 금호동 |
| | 4구 | 금호동 | 금호동 | 금호동 | |
| | 5구 | 청호동 | 청호동 | 청호동 | 청호동 |
| ~ | ~ | ~ | ~ | ~ | |
| 16개 법정리 11개 연합리 | 12개 동 | 13개 동 | 14개 법정동 13개 행정동 | 13개 법정동 13개 행정동 | 13개 법정동 8개 행정동 |

출처: 속초시통계연보

46쪽. [표] 속초리 행정구역 오류 수정

(2) 속초읍 행정구역(1959년)

[표] 1959년 속초읍 행정구역별 국민반 현황

| 리명 | 속초1리 | 속초2리 | 속초2리 | 속초2리 | 속초2리 | 속초2리 | 도리원리 | 이목리 |
|------|------|------|------|------|------|------|------|-----|
| 국민반수 | 30 | 17 | 42 | 36 | 21 | 33 | 4 | 3 |

⇒

(2) 속초읍 행정구역(1959년)

표. 1959년 속초읍 행정구역별 국민반 현황

| 리명 | 속초1리 | 속초2리 | 속초3리 | 속초4리 | 속초5리 | 속초6리 | 도리원리 | 이목리 |
|------|------|------|------|------|------|------|------|-----|
| 국민반수 | 30 | 17 | 42 | 36 | 21 | 33 | 4 | 3 |

59쪽. [표] 주요 변화 시기 년도 오류 수정

[표] 주요 변화 시기(1966, 1974, 1983, 2020) 속초시 동(洞)별 면적

| 속초시 | 1966년 법정동(洞)별 면적(km ²) | 1973년 법정동(洞)별 면적(km ²) | 1983년 법정동(洞)별 면적(km ²) | 2020년 행정동(洞)별 면적(km ²) |
|-----|------------------------------------|------------------------------------|------------------------------------|------------------------------------|
| 영랑동 | 0.430 | 0.430 | 0.46 | 7.64 |
| 장사동 | | 7.128 | 7.31 | |

⇒ [표] 주요 변화 시기(1966, 1973, 1983, 2020) 속초시 동(洞)별 면적

60쪽. 기준년도 수정

(1) 1960년대 속초시 면적

1963년 속초시 승격 이후 1960년대 속초시의 면적은 아래 지도와 같다. 1964년 기준 ~

⇒

(1) 1960년대 속초시 면적

1963년 속초시 승격 이후 1960년대 속초시의 면적은 아래 지도와 같다. 1966년 기준 ~

61쪽. 1970년대 속초시 면적 수정 및 면적 지도 교체

(2) 1970년대 속초시 면적

1973년 7월 1일 ~ 1972년말 기준 속초시의 면적은 72.73km²이었는데, 장사동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면적이 7.13km²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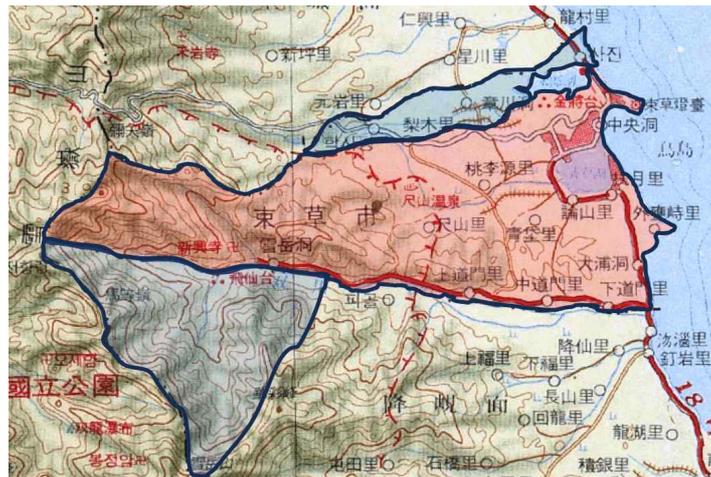


1970년대 속초시 면적 지도(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2) 1970년대 속초시 면적

1971년 속초시 면적은 66.0km²이었는데, 1972년 설악동 면적 6.63km²가 추가되어 72.73km²이 되었고 1973년 장사동 면적 7.12km²가 추가되어 79.85km²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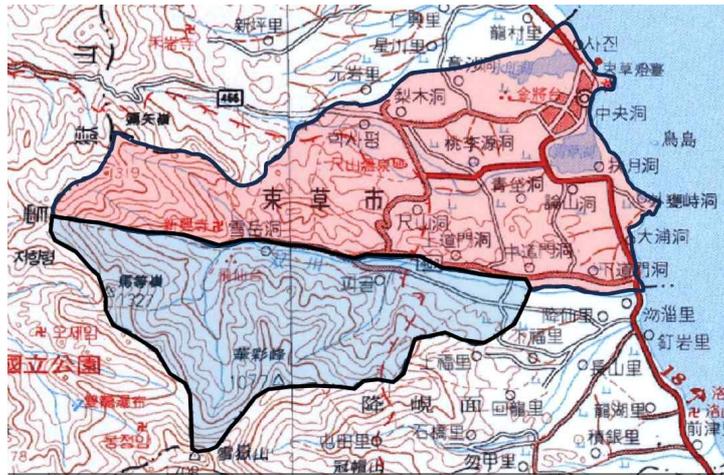
1973년 속초시 면적 지도(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 정보맵)

62쪽. 1980년대 속초시 면적 수정 및 면적 지도 교체

(3) 1980년대 속초시 면적

1983년 2월 15일 양양군 강현면 상북리 일부 지역이 속초시 설악동으로 편입되면서 속초시 면적이 한 번 더 크게 확대되었다. 1982년말 기준 속초시의 면적은 89.93km²이었는데, 설악동에 상북리 일부 지역이 추가되면서 면적이 14.52km² 늘었다. 설악동의 경우 1982년말

39.79km²였던 면적이 1983년말 54.27km²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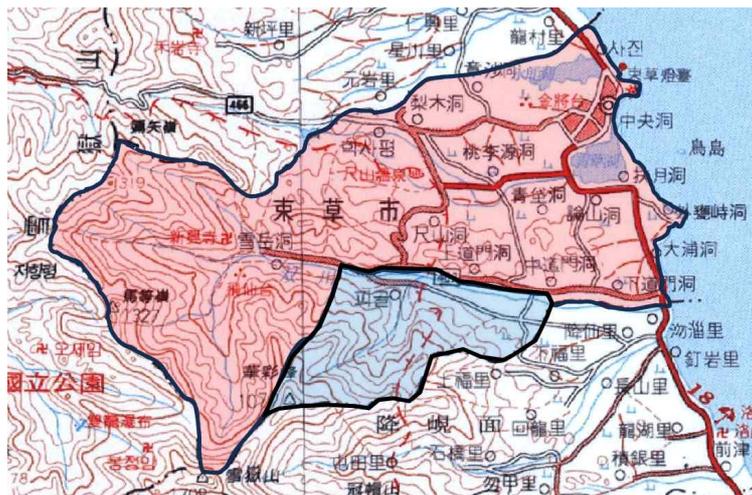


1980년대 속초시 면적 지도(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3) 1980년대 속초시 면적

1983년 2월 15일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 지역인 장재터가 속초시 설악동으로 편입되면서 속초시 면적이 다시 확대되었다. 1982년 기준 속초시의 면적은 89.93km²이었는데, 14.52km² 증가하여 1983년 104.45 km²가 되었다. 설악동의 경우 1982년 39.79km²였던 면적이 1983년 54.27km²로 확대되었다.



1983년 속초시 면적 지도(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 정보맵)

79쪽. 아래에서 6째줄, 단어 수정

즉 무너미고개는 풍~~곡~~(wind gap)일 가능성이 크며 풍~~곡~~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

⇒

즉 무너미고개는 풍~~곡~~(wind gap)일 가능성이 크며 풍~~곡~~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

82쪽. 아래에서 3째줄, 단어 수정

대승폭포가 위치한 남설악지역 대부분은 중생대 백악기에 ~

⇒

대승폭포가 위치한 내설악지역 대부분은 중생대 백악기에 ~

83쪽. 위에서 4째줄, 아래에서 5째줄, 내용 수정

독주폭포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남설악 지구에 있는 폭포이다. 설악산 서북주릉의 남쪽 사면에서 발원한 물이 모여 흐르는 독주계곡(독주골)에 있는 폭포로서 이 지방 사람들은 옛날 이곳에 있던 절 덕주사의 이름을 따서 덕주폭포라고 부르기도 한다.(삭제)

⇒

독주폭포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남설악 지구에 있는 폭포이다. 설악산 서북주릉의 남쪽 사면에서 발원한 물이 모여 흐르는 독주계곡(독주골)에 있는 폭포이다.

비룡폭포 계곡은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폭포로 쌍천의 지류가 화채봉과 칠성봉 북쪽 기슭에 만들어 놓은 폭포와 그 일원의 계곡을 의미한다.

⇒

비룡폭포는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폭포로 쌍천의 지류가 화채봉과 칠성봉 북쪽 기슭에 만들어 놓은 폭포를 의미한다.

86쪽. 위에서 12째줄, 한자 수정

육담폭포는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폭포로 외설악 지구의 토왕성계곡(土旺城溪谷)에 있다.

⇒

육담폭포는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폭포로 외설악 지구의 토왕성계곡(土王城溪谷)에 있다.

89쪽. 아래에서 3째줄, 단어 뜻 추가

대승령층은 주로 녹회색 내지 암회색 셰일과 사암으로 구성되며, 기저에는 기반암 역들로 구성된 기저역암이 퇴적되어 있다.

⇒

대승령층은 주로 녹회색 내지 암회색 셰일과 사암으로 구성되며, 기저에는 기반암 역(조약들)들로 구성된 기저역암이 퇴적되어 있다.

91쪽. 법정 명칭으로 수정

(4) 조양동 온정리 구룡지(조양동 선사유적) ⇒ : (4) 조양동 온정리 구룡지(조양동 유적)

93쪽. 단어 추가, 아래에서 1째줄, 단어 수정

2) 고개

재 또는 영(嶺)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패스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패서블(passable), 즉 통과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산등성이의 낮은 곳에 길이 통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

영어로는 패스(pass)라고 하는데,

1989년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에 따른 왕복 2차로 확·포장 공사~~의~~ 완공 후 민간에게 개방되었다.

⇒

1989년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에 따른 왕복 2차로 확·포장 공사~~를~~ 완공 후 민간에게 개방되었다.

94쪽. 단어 및 지명 수정

(3) 짜리재

조양동 청대리와 도문동 상도문리~~을~~ 연결하는 고개로 해발고도는 143m이다. 목우재와 떡발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두 고개에 비해 통행량 적어 도로 폭이 좁으며, 2006년 도로 보수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조양동 청대리와 도문동 상도문리~~를~~ 연결하는 ~ 두 고개에 비해 통행량이 적어 도로 폭이 좁으며 ~

(4) 떡발재

조양동 논산리와 설악동 중도문리를 연결하는 고개로 해발고도 99m이다. 청대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늘어난 통행량에 맞춰 ~

⇒

조양동 논산리와 도문동 중도문리를 연결하는 ~ 동해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늘어난 통행량에 ~

95쪽. 위에서 2째줄, 단어 수정

따라서 형태는 비슷하나 토어와 다리 그 규모가 크고 단일 암괴로 되어있는 것이 다르다. 보른하르트의 대표적 사례로는 울산바위가 있다.

⇒

따라서 형태는 비슷하나 토르와 달리 그 규모가 ~

103쪽. 위에서 1째줄, 아래에서 7째줄, 문장 수정 및 추가, 아래에서 9째줄, 문장 수정 및 추가

설악산국립공원은 지리적으로 북위 38° 5' 25" ~ 38° 12' 36" , 동경 128° 18' 6" ~ 128° 30' 43" 지역에 위치하며 1965년 11월 5일부로 천연기념물 제121호로 지정,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 제5호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는 총 398.237km²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수려한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다.

⇒

설악산국립공원은 지리적으로 북위 38° 5' 25" ~ 38° 12' 36" , 동경 128° 18' 6" ~ 128° 30' 43" 지역에 위치한다. 이 범위 내의 163.6km²는 1965년 11월 5일부로 천연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되었고, 1970년 3월 24일에는 국립공원 제5호로 최초 지정된 후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의 10개 마을(하도문, 중도문1리, 중도문2리, 상도문1리, 상도문2리, 장재터마을, 설악동 11통, 12통, 13통)을 대상으로 ~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의 10개 마을(하도문, 중도문1리, 중도문2리, 상도문1리, 상도문2리, 장재터마을, 설악동 11통, 12통, 13통, 14통)을 대상으로 ~

따라서 속초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사업으로 2022년 1억 8,000만 원을 투입했다.

⇒

따라서 속초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2년 1억 8,000만 원을 투입했다.

105쪽. [표] 전국의 지하댐 내용 수정

[표] 전국의 지하댐

| 시설명 | 위치 | 준공연도 | 용도 | 관리기관 |
|-----|-------|------|------|-----------|
| 이안 | 경북 상주 | 1984 | 농업용수 | 한국 농어촌 공사 |
| 남송 | 경북 포항 | 1986 | | |
| 옥성 | 충남 공주 | 1986 | | |
| 고천 | 전북 정읍 | 1986 | | |
| 우일 | 전북 정읍 | 1986 | | |
| 쌍천 | 강원 속초 | 1998 | 생활용수 | 속초시 |

⇒

<전국의 지하댐>

| 시설명 | 위치 | 완공연도 | 용도 | 관리기관 |
|------|-------|------|------|-----------|
| 이안 | 경북 상주 | 1983 | 농업용수 | 한국 농어촌 공사 |
| 남송 | 경북 포항 | 1986 | | |
| 옥성 | 충남 공주 | 1986 | | |
| 고천 | 전북 정읍 | 1986 | | |
| 우일 | 전북 정읍 | 1986 | | |
| 쌍천 1 | 강원 속초 | 2000 | 생활용수 | 속초시 |
| 쌍천 2 | 강원 속초 | 2021 | | |

국내에서는 1983년 완공된 경북 상주의 이안 지하댐을 시작으로 남송, 옥성, 우일, 고천, 쌍천 지하댐을 건설하여 총 6개의 지하댐을 운영하고 있다. 쌍천 지하댐의 경우, 국내 최초의 생활용수 취수와 해수 침입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평균 취수량이 22,700m³ /day에 이르고 있고 취수 상수도 양은 연간 1,500만m³ (2000년 기준)로 속초시 급수량의 68%(30,000m³)를 담당하여 국내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다.

[사진 : 쌍천 지하댐]

쌍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출되는 유로가 19km로 속초시 상수원이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유로 연장이 짧고 유역면적(66km²)이 좁아 연중 수량이 풍부하지 못해 우기 때 빼고는 대체로 건천이다. 홍수 시에 하천 유량이 급속도로 바다로 유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봄과 겨울철 매년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어 속초시의 경우 수자원의 확보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쌍천의 하구에는 층적 대수층이 약 10m 두께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곳에 저류공간을 만들고 해수 침입과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해안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위치에 830m 길이의 지하댐을 2000년도에 완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1차 지하댐보다 상류에 지하 26m 지점에 높이 7.7m, 길이 1.1km 지하차수벽(지하댐)을 추가로 완공해 하루 12,5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10만 명에 가까운 속초시민과 15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쌍천 지하댐은 수자원확보 차원에서 매우 훌륭한 시설이다.

⇒

국내에서는 1983년 완공된 경북 상주의 이안 지하댐을 시작으로 남송, 옥성, 고천, 우일, 제1·2 쌍천 지하댐을 건설하여 총 7개의 지하댐을 운영하고 있다. 쌍천 지하댐의 경우 국내 최초로 생활용수 취수와 해수 침입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1998년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된 제1지하댐은 일일 16,000톤의 물을 확보하였다. 이후 2018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0억 원을 투입해 2021년 제2지하댐(길이 1.2km, 높이 평균 7.7m)을 준공하였으며, 일일 7,000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쌍천 제1지하댐과 제2지하댐을 합하면 630,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 쌍천 지하댐]

쌍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출되는 하천으로, 유로 길이는 19km이며 속초시의 상수원이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유로 연장이 짧으며 유역면적(66km²)이 좁아 연중 수량이 풍부하지 못해, 장마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건천이다. 홍수 시 하천 유량이 급속도로 바다로 유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봄과 겨울철 매년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어 속초시는 수자원의 확보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쌍천의 하구에는 약 10m 두께의 충적 대수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곳에 저류공간을 만들고 해수 침입을 방지하고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안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위치에 830m 길이의 제1지하댐을 2000년에 완공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제1지하댐보다 상류에 지하 26m 지점에 높이 7.7m, 길이 1.1km 지하차수벽(제2 지하댐)을 추가로 완공하여 하루 12,5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0만 명에 가까운 속초시민과 15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쌍천 지하댐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훌륭한 시설이다.

106쪽. 아래에서 4째줄, 문장 수정, 아래에서 6째줄, 단어 수정

1959년 읍세일람에서는 속초수리조합의 발족의 계기로 지속적인 개간으로 미곡 중산이 이루어져 속초 지역의 식량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

1959년 읍세일람에서는 속초수리조합 발족의 계기로 지속적인 개간으로 미곡 중산이 이루어져 속초 지역의 식량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도문평야(道門平野) 쌍천 중하류에 발달한 퇴적평야로 ~ ⇒ 도문평야(道門平野)는 쌍천 중하류에 ~

107쪽. 위에서 1째줄, 문장 수정, 위에서 9째줄, 단어 및 년도 수정

도문평야와 주변 지역은 지역에 따라 상도문을 삼성평, 중도문을 함정평, 하도문을 하수원평 장재터 일대를 장재평이라고 한다.

⇒

도문평야와 주변 지역은 지역에 따라 상도문을 삼성평, 중도문을 함정평, 하도문을 하수원평, 장재터 일대를 장재평이라고 한다.

중도문은 쌍천과 장재평 사이의 충적지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중도문에는 쌍천과 장재평 사이의 충적지에 2024년 완공을 ~

108쪽. 아래에서 3째줄, 문장 수정, 아래에서 11째줄, 띄어쓰기

청초천 내 지류 하천인 소하천은 총 16개소로 이목리 마을의 샘골천, 뒷버덩들천, 응골 마을의 응골

1·2·3천, 척산 마을 부근을 흐르는 목우재천, 물안골천, 가마소천, 자활촌 마을의 바람꽃 1·2천, 학사평 1·2천, 청대1·2·3·4천이 있다.

⇒

청초천 내 지류 하천인 소하천은 총 18개소로 자활 1·2·3·4천, 가마소천, 목우재천, 물안골천, 응골천, 응골 2·3천, 청대1·2·3·4천, 조양천, 논산리천, 뒷버덩들천, 샘골천이 있다.

이후 제방은 척산 마을 척산교까지 연장되었다.

⇒

이후 제방은 척산마을 척산교까지 연장되었다.

109쪽. [표] 내용 수정

[표] 청초천의 지류>

| 소하천명 | 위치 | |
|------|-------------|-------------|
| | 기점 | 종점 |
| 자활1천 | 노학동 1006 | 노학동 994 |
| 자활2천 | 노학동 1018-22 | 노학동 산15 |
| ~ | ~ | ~ |
| 목우재천 | 노학동 산1 | 노학동 3-7 |
| 물안골천 | 노학동 산93 | 노학동 1265-37 |
| 응골천 | 노학동 535 | 노학동 1265-64 |
| 응골2천 | 노학동 산558 | 노학동 385-2 |
| ~ | ~ | ~ |

⇒ 응골1천

113쪽. 위에서 1째줄, 년도 수정

2001년 지형도로 1997년 관광 엑스포 때 청초호를 엑스포 부지로 쓰기 위해 청초호의 일부가 매립되며 청초호의 면적이 축소하고 호안이 직선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01년 지형도로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때 청초호를 ~

116쪽. 아래에서 11째줄, 띄어쓰기

해식애가 파랑의 침식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후퇴할 때 해식애를 구성하는 암석의 단단한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를 시스택이라고 하며, 해식애 하단의 약한 부분에는 해식동이 형성되기도 한다.

⇒

해식애가 파랑의 침식을 ~ 되는데 이를 시스택이라고 하며, 해식애 하단의 ~

119쪽. 위에서 4째줄, 문장 수정

외용치 해변은 1953년 휴전 이후 사실상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온 곳으로 지난 1970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해안경계 철책이 설치되면서 완전히 차단됐다.

⇒

외용치해변은 1953년 휴전 이후 사실상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온 곳이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해안 경계 강화 목적의 철책이 1970년 설치되면서 완전히 차단됐다.

121쪽. 아래에서 12째줄, 문장 수정

(2) 외옹치

외옹치는 일제강점기까지 옹진(甕津)이라는 지명이었다. 옹진은 내용진과 외옹진으로 구분했는데 내용진은 현재의 대포, 외옹진은 외옹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옹진은 우리말로 독나루터라는 뜻으로 독을 얹어놓은 모양이라는 의미이다. 과거 대포 고갯길 7번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포에서 속초로 갈 때 현재의 외옹치 고갯길이 주요 간선도로망이었다. 고갯길 옆에 밭뚝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밭뚝재라 하였는데 밭뚝상의 변화로 독재라 불리었고, 그 결과 옹진이라는 이름 대신 바깥 독재라는 뜻의 한자 표기인 외옹치리(外甕峙里)라는 행정구역명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

조선시대(朝鮮時代) 외옹치의 이름은 옹진(甕津)이다. 옹진이라는 이름은 마을의 형태가 항아리(독)를 얹어놓은 형태인 옹(독)산 즉, 덕산(德山)에서 유래하였다. 독재는 옹산(덕산)으로 가는 고개 이름으로 대포리(大浦里)의 다른 이름인 안독재, 큰독재, 외옹치리(外甕峙里)의 다른 이름인 밭독재라는 이름을 생겨나게 한 중요한 고개이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교통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포리와 옹진의 연결 통로인 독재의 바깥쪽이라고 하여 바깥독재, 또는 줄여서 밭독재라고 불리어지던 것이 한자로 바뀌어 외옹치리(外甕峙里)가 되었다.

126쪽. 아래에서 6째줄, 내용 삭제 수정

태백산맥의 미시령 부근 달마봉에서 발원한 청초천이 동류하여 척산과 노리를 지나면서 소야평야를 이루고, 조양동에서 청초호로 흘러든다.

⇒

달마봉 부근에서 발원한 청초천이 동류하여 척산과 노리를 지나면서 소야평야를 이루고, 조양동에서 청초호로 흘러든다.

127쪽. 위에서 2째줄, 띄어쓰기

청초호는 제1종항만으로 지정된 속초항의 내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

청초호는 제1종 항만으로 지정된 속초항의 내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128쪽. 사진 설명 수정



설악신문에 실린 청초호 오염 관련 자료(설악신문)

⇒

설악신문에 실린 청초호 오염 관련 자료(설악신문, 1991. 6. 3일자)

130쪽. 위에서 4째줄, 단어 수정

고지도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데, 『양양읍지』 도서조에 ‘무로도(無路島)는 북쪽 30리 **속초진(束草)**에 있는데 대나무가 산출된다.’ 는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고지도에는 기록이 ~ **속초진(束草津)** ~

131쪽. 각주 내용 수정

(각주)

16.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외, 『속초도시변천사II』**, 2021, 69~70쪽

⇒

16.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외, 『속초도시변천사II』**, 속초문화원, 2021, 69~70쪽.

136쪽. [표] 내용수정 및 아래에서 4째줄 단어 수정

[표] 2차 연안정비 기본 계획

| 사업지구 | 사업구분 | 시설구분 | 총사업비(백만 원) |
|--------------|------|-----------------------|------------|
| 내물치 지구 | 친수 | 친수호안 200m, 해변산책로 300m | 1,700 |
| ~ | ~ | ~ | ~ |
| 자사 지구 | 보전 | 잡제 80m, 양빈 50,000㎡ | 6,000 |

⇒ **자사 지구**

연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2000년에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

⇒

연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2000년에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시행 ~

137쪽. 위에서 1째줄, 주무부처 수정

여러 연안정비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을 막기 어려워 **환경부**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

여러 연안정비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을 막기 어려워 **해양수산부**는 국민안심해안사업 ~

157쪽. 위에서 5째줄, 단어 수정

양간지풍이라는 **명칭**은 1633년 이식의 수성지, 1751년 이증환의 택리지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

양간지풍이라는 **현상**은 1633년 이식의 수성지, 1751년 이증환의 택리지에 ~

179쪽. 위에서 1째줄, 문장 수정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북 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붉은 동해와 남쪽으로** 쌍천을 경계로 양양군과 접하고 있으며, ~

⇒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북 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하고 남쪽으로는** 쌍천을 ~

181쪽. 위에서 1째줄부터, 문장 수정

속초시는 한반도의 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설악산의 동쪽에 있으며 설악산국립공원이 **시 면적(105.76km²)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설악산은 남한에서는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 다음으로 높은 산(대청봉 1,708m)으로 산세가 웅장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1965년에 **천연보호구역** 제171호로 지정되었고,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학술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

속초시는 한반도의 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설악산의 동쪽에 있으며 설악산국립공원이 **시 면적(105.76km²)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설악산은 남한에서는 **한라산(1,947m)**, 지리산(1,915m) 다음으로 높은 산(대청봉 1,708m)으로 산세가 웅장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71호(설악산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었고,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학술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193쪽. 위에서 10째줄, 자료 출처 추가

본 **조사에서는** 5과 13속 14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귀화식물 331분류군에 대하여 4.23%에 해당하며 본 조사지역의 출현종 507분류군에 대한 귀화율의 2.76%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처럼 귀화식물이 적게 나타난 것은 조사지점이 인간의 간섭을 많이 받는 지점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본 **조사(설악산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2020)**에서는 5과 13속 14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귀화식물 331분류군에 대하여 4.23%에 해당하며 본 조사지역의 ~

231쪽. [표] 단어 수정 및 사진 교체

[표] 쌍천에서 출현한 부착규조류

| 번호 | 학명 | 번호 | 학명 |
|----|---|----|-------------------------------|
| 10 | <i>Eunotia arcus</i> | 22 | <i>Reimeria sinuata*</i> |
| 11 | <i>Eunotia minor*</i> | 23 | <i>Synedra ulna</i> |
| 12 | <i>Eunotia muscicola var. perminuta</i> | 24 | <i>Tabellaria flocculosa*</i> |

출처: 설악산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2020

⇒ 11. *Eunotia minor**



속초 쌍천 지역(카카오맵)

⇒



속초시 설악동 산31·산42-2 일원 쌍천 하천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 RIMGIS, 표출 2025.10. 13)

232쪽. 사진 교체



속초 노학동 지역(카카오맵)

⇒



속초시 노학동 1265·884 일원에서 출현한 부착규조류(설악산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2020)

233쪽. 사진 설명 수정



갯터짐 현상(KBS뉴스, 2011) 사진

⇒ 갯터짐 현상(북한 금강산 인근 감호, KBS 뉴스, 2011)

255쪽. 위에서 12째줄, 출처 분야 수정

홍문표, 『속초시지』, 속초문화원, 2005.

⇒

홍문표, 『자연환경』, 『속초시사』, 속초문화원, 2005.

255쪽. 맨아래에 내용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관리시스템(<https://www.river.go.kr>)

256쪽. 아래에서 6째줄, 년도 수정

1785년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된 속초·속진리는 일제강점기 초에도 반농반어촌으로 도시의 면모와 거리가 멀었으며 1914년 도천면 사무소가 위치한 대포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어업 시설, 관공서, 상가 항만 시설이 입지하면서 시가지의 형태가 나타났다.

⇒

1785년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된 ~ 1916년 도천면 사무소가 위치한 대포항을 ~

257쪽. 각주 내용 수정

(각주)

3. 속초문화원·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외, 「속초도시변천사 I」, 2020, 34쪽

⇒

3.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외, 「속초도시변천사 I」, 속초문화원, 2020, 34쪽

258쪽. 위에서 3째줄, 문장 수정

또한, 1968년 동해안 해일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주민이 새마을에 입주하였고, 1988년 속초고등학교가 교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여 진입로 양쪽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

또한, 1969년 어로저지선의 남하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주민이 새마을에 입주하였고, ~

260쪽. 년도 수정 및 단어 삭제

11) 대포동

대포리는 1914년 도천면사무소 소재지가 된 이후 행정기관과 어업 및 항만 관련 시설이 입지하여 당시 항만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형성하였다.

⇒ 대포리는 1916년 도천면사무소 소재지가 된 ~

12) 도문동

1963년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 설악산로를 따라 상가들이 입지하고 있으나 연속적이지 않으며 다수의 상도문리의 경우 다수의 민박집이 입지하고 ~

⇒ ‘다수의’ 삭제

1963년 시 승격 ~ 입지하고 있으나 연속적이지 않으며 상도문리의 경우 다수의 민박집이 ~

274쪽. 위에서 9째줄, 단어 수정

하지만 속초 **향토**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많은 바위섬이 사라졌고 시청 건너편의 모래해안도 콘크리트 아래로 파묻혔다. 이러한 매립공사의 결과 ~

⇒ 하지만 속초 **지역**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 ~

276쪽. 아래에서 5째줄, 단어 수정

한편 외항(동명항)과 내항(청호항)을 연결하는 구수로 양쪽이 매립으로 폭 40~50m로 좁아졌고, 이로 인해 **갯벌**의 운항시간도 단축되었다.

⇒

한편 외항(동명항)과 내항(청호항)을 ~ 좁아졌고, 이로 인해 **갯배**의 운항시간도 ~

277쪽. 사진 설명 및 각주 내용 수정



7번 국도 조양동~대포동 구간(1960년대)과 교동~**용춘리** 구간(2023)

⇒ 7번 국도 조양동~대포동 구간(1960년대)과 교동~**용춘리** 구간(2023)

(각주)

13. 1999년 10월 1일 속초 교동~고성군 토성면 용춘리 5.39km 구간이 국도 **8호선** 신규 노선으로 지정

⇒ **7호선**

278쪽. 위에서 1째줄, 단어 수정

속초시는 1998년 10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13개 법정동을 8개 행정동으로 **축소**하였으나, ~

⇒ 행정구역 개편으로 13개 법정동을 8개 행정동으로 **개편**하였으나,

282쪽. 아래에서 10째줄, 년도 수정

쌍천은 속초시민의 주요한 상수원으로 **1999년** 1차 지하댐이 완공되었고, ~

⇒ **1998년**

284쪽. 위에서 4째줄, 8째줄, 단어 수정

청대리는 마을 동북부에 청대주공 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2차아이파크아파트**, 산수빌아파트 등이 ~

⇒ **아이파크2차아파트**

은정리는 **조양동 선사유적지**에 인접한 마을로 동해대로, 조양로, 청대로가 마을을 ~

⇒ **조양동 유적**

285쪽. 위에서 10째줄, 13째줄, 20째줄, 23째줄, 25째줄, 33째줄, 단어 수정

또한, 2018년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동우대학)이 폐교 이후 건물과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옛 동우대학

청호동은 이마트 속초점 입점, 청호아이파크아파트 준공, 갯배와 아바이 마을의 관광지화, 금강설악 대교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으로 순수 어촌 마을에서 관광어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 향상되어

도문동은 속초시 법정동 13개 동 중에서 가장 변화가 적은 동으로 상도문, 도문동 마을이 원형을 유지하고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다.

⇒ 상도문, 도문동(삭제)

설악동은 B, C 지구 관광 숙박 단지 조성 이후 20년 가까이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콘도미니엄, 호텔, 모텔 등 세련되고 고급화된 숙박업소 등장, 수학여행 코스 변화, 타 지역의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현재 대부분 업소가 폐업 상태이며 건물로 방치되어 있다.

⇒ 폐업 상태이며 보기 흉한 건물로 방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 현황을 보면 미시령을 연결하는 56번 지방도는 2006년 4차선 터널 개통 이후, 2010년 지역주민(속초, 인제, 고성, 양양) 통행료 50% 감면, 2014년 하이패스 개통, ~

⇒ 왕복 4차로

강릉~원주의 1975년 영동고속국도 개통과 41년 차이, 1995년 홍천~춘천의 중앙고속국도과 31년 차이로 비로소 속초시민도 고속도로 시대에 뒤늦게 진입하였다.

⇒ 중앙고속국도와

286쪽. 위에서 2째줄, 동해고속도로 서술 추가 수정

속초IC를 통해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연계되어 수도권 접근성이 2시간 10분대로 크게 단축되었다.

⇒ 동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289쪽. 위에서 16째줄, 행정구역 서술 수정

양양 전체의 인구가 1815년의 2,106명에서 일제강점기인 1913년 59,756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는데, 양양의 일부인 속초읍 부근의 인구 변동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 속초 부근의 취락별 인구 분포를 알기는 어렵다,

⇒

양양 전체의 인구가 1815년의 2,106명에서 ~ 양양의 일부인 도문면과 소천면 부근의 인구 변동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 ~

290쪽. 아래에서 6째줄, 단어 수정

1925년경에 이르면 18세기와 비교하여 전체 인구가 5배 이상 증가 하였고, 내물치 468명, 대포 777명, 외용치 463명, 부월 476명, 속초·속진리 1,058명이며 합계 어촌인구는 3,242명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하고 있다.

⇒ 해안지역 인구는

293쪽. [표] 내용 수정

[표] 1954년 속초읍 행정 구역과 촌락 현황

| 구분 | 속초 1구 | 속초 2구 | 속초 3구 | 속초 4구 | 속초 5구 | 속초 6구 | 자연 마을 | | | | | 계 |
|--------|-------|-------|------------|-------|-------|-------|--------|----------------------|---------------------|--------------------------|--------------------------|----|
| | | | | | | | 설악산 부근 | 도문 부근 | 대포 부근 | 부월 부근 | 노리 부근 | |
| 현재 법정동 | 영랑동 | 동명동 | 중앙동 금호동 | 교동 | 청호동 | 청학동 | 장항리 |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 |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 14 |
| | | | | | | | 설악동 | 도문동 | 대포동 | 조양동 | 노학동 | |

출처: 정상철, 『속초의 역사와 이해』, 2018

⇒

[표] 1954년 속초읍 행정 구역과 촌락 현황

| 구분 | 속초 1구 | 속초 2구 | 속초 3구 | 속초 4구 | 속초 5구 | 속초 6구 | 자연 마을 | | | | | 계 |
|--------|-------|-------|------------|------------------------------|-------|-----------------|--------|----------------------|---------------------|--------------------------|--------------------------|----|
| | | | | | | | 설악산 부근 | 도문 부근 | 대포 부근 | 부월 부근 | 노리 부근 | |
| 현재 법정동 | 영랑동 | 동명동 | 중앙동 금호동 | 금호동 교동 일부 청학동 일부 | 청호동 | 청학동 교동 일부 | 장항리 |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 |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 14 |
| | | | | | | | 설악동 | 도문동 | 대포동 | 조양동 | 노학동 | |

출처: 정상철, 『속초의 역사와 이해』, 2018

294쪽. 위에서 11째줄, 문장 수정

1962년 군사혁명 정부의 **개간 정책에 따라** 충남 논산에서 집단 이주민들이 노학동 뒷버덩에 정착하여 신흥촌(新興村)이라는 새로운 마을이 탄생하였다

⇒

1962년 군사정변 정부의 **연무대 설치에 따라** 충남 논산에서 집단 이주민들이 노학동 뒷버덩에 ~

295쪽. [표] 수정

[표] 2023년 속초의 자연 마을 세대 및 인구(2020년 말 기준)

| 설악동 | 세대 | 인구 | 조양동 | 세대 | 인구 | 노학동 | 세대 | 인구 |
|-----------|-----|-----|----------|-----|-----|----------|-----|-----|
| 장재터(15통) | 61 | 100 | 부월(3통) | 294 | 593 | 도리원(31통) | 257 | 434 |
| 도문동 | | | 온정(16통) | 378 | 571 | 이목(32통) | 104 | 202 |
| 하도문(6통) | 145 | 270 | 논산(32통) | 307 | 515 | 노리(33통) | 374 | 569 |
| 중도문2(7통) | 91 | 171 | 청대(35통) | 152 | 309 | 응골(34통) | 191 | 303 |
| 중도문1(8통) | 46 | 87 | 대포동 | | | 척산(35통) | 68 | 134 |
| 상도문2(9통) | 77 | 146 | 내물치(1통) | 165 | 290 | 도평(36통) | 79 | 129 |
| 상도문1(10통) | 209 | 362 | 대포(3·4통) | 226 | 417 | 신흥(37통) | 93 | 162 |
| 장사동 | | | 외옹치(5통) | 105 | 188 | 학사평(38통) | 118 | 233 |
| 사진(11통) | 224 | 392 | | | | 자활촌(39통) | 94 | 177 |
| 장천(13통) | 116 | 224 | | | | | | |

출처: 속초통계연보

⇒ 동별 표채우기 색상 동일화

[표] 2023년 속초의 자연 마을 세대 및 인구(2020년 말 기준)

| 설악동 | 세대 | 인구 | 조양동 | 세대 | 인구 | 노학동 | 세대 | 인구 |
|-----------|-----|-----|----------|-----|-----|----------|-----|-----|
| 장재터(15통) | 61 | 100 | 부월(3통) | 294 | 593 | 도리원(31통) | 257 | 434 |
| 도문동 | | | 온정(16통) | 378 | 571 | 이목(32통) | 104 | 202 |
| 하도문(6통) | 145 | 270 | 논산(32통) | 307 | 515 | 노리(33통) | 374 | 569 |
| 중도문2(7통) | 91 | 171 | 청대(35통) | 152 | 309 | 응골(34통) | 191 | 303 |
| 중도문1(8통) | 46 | 87 | 대포동 | | | 척산(35통) | 68 | 134 |
| 상도문2(9통) | 77 | 146 | 내물치(1통) | 165 | 290 | 도평(36통) | 79 | 129 |
| 상도문1(10통) | 209 | 362 | 대포(3·4통) | 226 | 417 | 신흥(37통) | 93 | 162 |
| 장사동 | | | 외옹치(5통) | 105 | 188 | 학사평(38통) | 118 | 233 |
| 사진(11통) | 224 | 392 | | | | 자활촌(39통) | 94 | 177 |
| 장천(13통) | 116 | 224 | | | | | | |

출처: 속초통계연보

296쪽. 아래에서 3째줄, 문장 수정

이곳은 고성군 토성면에 속하다가 1973년 속초에 편입되면서 장천리와 사진리를 통합해 장사동으로 25년 동안 존속하다가, 1998년 동계 개편으로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

이곳은 양양군 토성면에 속하다가 1951년 수복 후 속초읍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민정 이양 후 고성군 토성면으로 넘어갔고, 1973년 속초에 다시 편입되면서 장천리와 사진리를 통합해 장사동으로 25년 동안 존속하다가, ~

296쪽. 아래에서 5째줄, 문장 수정

1968년 동해안 해일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주민 140세대가 영랑호 입구 북쪽과 7번국도 사이에 새 마을을 조성하여 정착하였고, 사진리 주민들과 더불어 장사동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

1969년 어로저지선 남하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주민 140세대가 영랑호 입구 북쪽과 7번 국도 ~

299쪽. 아래에서 3째줄, 한자 오류 수정

마을 동쪽은 도리원과, 서쪽은 노리와 인접하며, 돌배나무골, 이목동으로 불리다가 이목리(梨木理)가 되었다.

⇒ 梨木里

303쪽. 위에서 6째줄, 단어 수정

현재 척산 마을은 과수농업과 함께 토종닭 백숙 전문집이 성업 중이며, 인근에는 죽육공원과 속초 종합 운동장이 위치하고 있다.

⇒ 속초종합경기장

305쪽. 아래에서 5째줄, 차로 구분 수정

1970년대 말까지 논농사 위주의 한적한 농촌마을이었으나, ~ 1989년 인제군과 속초 시내를 연결하는 미시령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확·포장되고 다수의 순두부 음식점들이 입지하면서 ~

⇒ 2차로로

306쪽. 위에서 10째줄, 년도 수정

1967년 준공되어 노학동 일대에 관계용수를 공급하는 속초시 상수원인 학사평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 1963년 준공되어 ~

309쪽. 아래에서 4째줄, 법정 명칭 수정 및 단어 삭제 수정

온정리에 위치한 조양동 선사유적지는 조양동 시가지 가운데 남아 있는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1992년 발굴되었으며, 속초지역에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준 최초의 유적지로 같은 해 국가사적 376호로 지정되었다.

⇒ ‘최초의’ 삭제

온정리에 위치한 조양동 유적은 조양동 시가지 가운데 ~ 속초지역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준 유적지로 ~

315쪽. 위에서 9째줄, 단어 수정

당시 대포항은 동해안 정기항로의 기항지였고, 일본인 집단거주지가 있었고, 3차 산업인

⇒ 집단거주지

319쪽. 아래에서 8째줄, 문장 수정

하도문 찜채마을에서는 4계절 내내 축제가 지속된다.

⇒

하도문 찜채마을은 2011년에서 2018년까지 봄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벚꽃길 체험, 여름에는 찜채 축제, 가을에는 농경문화 체험, 겨울에는 정월 대보름에 민속놀이 축제가 개최되었다.

320쪽. 아래에서 13째줄, 문장 수정

1895년 을미개혁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도문리에 도문면사무소가 1916년까지 소재하였고 당시 도문면

관할 구역은 대포, 외웅치, 내물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신흥사로 ~

⇒

1896년 갑오개혁 후 13도제 실시로 중도문리는 강원도 양양군 도문면에 속하였고 당시 도문면 ~

324쪽. 위에서 6째줄, 9째줄, 문장 수정

지명의 유래는 노루목 고개의 노루목을 한자로 표기한 장항(獐項)에서 온 것으로, 마을의 범위는 노루목을 중심으로 향성사지 3층석탑 일대인 탑(塔)별, 비룡교 건너 소토왕골 입구인 토왕성리(핏골), 소공원과 비선대 사이의 정고평(丁庫坪)의 화전촌(火田村)을 모두 포함하였다.

⇒ ‘비룡교 건너’ 삭제

지명의 유래는 노루목 고개의 노루목을 ~ 향성사지 3층석탑 일대인 탑(塔)별, 소토왕골 입구인 토왕성리(핏골), 소공원과 비선대 사이의 정고평(丁庫坪)의 화전촌(火田村)을 모두 포함하였다.

1973년엔 설악국립공원개발 기본계획이, 75년엔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1978년 설악동 170번지는 케이블카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이 철거되고 ‘설악동 소공원’ 으로 ~

⇒

1973년엔 설악국립공원개발 기본계획이, ~ 1978년 설악동 구단지는 케이블카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이 철거되고 ‘설악동 소공원’ 으로 ~

326쪽. 위에서 2째줄, 단어 수정

속초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시기는 구석기시대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속초시 청호아이파크아파트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다.

⇒ 유적

329쪽. [표] 수정

<일제강점기 속초의 인구 변화(①면세일반(1926), ②조선국세조사보고)>

(단위: 명)

| | 연도 | 세대수 | 인구총수 | 남 | 여 | 인구증감 | 세대당 평균 인원 | 성비(%) |
|---|-------|-------|--------|-------|-------|--------|-----------|-------|
| ① | 1925년 | 1,120 | 6,222 | | | | 5.55 | |
| ② | 1925년 | 1,263 | 6,979 | 3,765 | 3,214 | | 5.5 | 117.1 |
| | 1930년 | 1,365 | 7,264 | 3,802 | 3,462 | ▲285 | 5.32 | 109.8 |
| | 1935년 | 1,750 | 8,967 | 4,584 | 4,383 | ▲1,703 | 5.11 | 104.6 |
| | 1945년 | 2,440 | 12,450 | 6,214 | 6,236 | ▲3,483 | 5.1 | 99.7 |

[표]일제강점기 속초의 인구 변화(①면세일반(1925), ②조선국세조사보고)

(단위: 명)

| | 연도 | 호수 | 인구 | 남 | 여 | 인구증감 | 세대당 평균 인원 | 성비(%) |
|---|-------|-------|--------|-------|-------|--------|-----------|-------|
| ① | 1925년 | 1,119 | 6,219 | | | | 5.55 | |
| ② | 1925년 | 1,263 | 6,979 | 3,765 | 3,214 | | 5.5 | 117.1 |
| | 1930년 | 1,365 | 7,264 | 3,802 | 3,462 | ▲285 | 5.32 | 109.8 |
| | 1935년 | 1,750 | 8,967 | 4,584 | 4,383 | ▲1,703 | 5.11 | 104.6 |
| | 1945년 | 2,440 | 12,450 | 6,214 | 6,236 | ▲3,483 | 5.1 | 99.7 |

331쪽. [표] 근거자료 추가, 아래에서 3째줄 문장 수정

[표] 속초의 인구 변화 추세

| 연도 | 세대수 | 인구 | 세대당 평균 인원 |
|--------|-------|--------|-----------|
| 1949년① | 2,321 | 11,406 | 4.91 |
| 1953년② | 3,661 | 16,213 | 4.43 |
| 1954년① | 4,841 | 20,599 | 4.26 |
| 1955년③ | 5,350 | 23,699 | 4.43 |
| 1958년④ | 7,029 | 31,435 | 4.47 |
| 1961년⑤ | 8,883 | 42,258 | 4.76 |

⇒ ① 양양군청, 「군세일람」, 1954. ② 양양군, 「수북년감」, 1954. ③ 속초읍, 「읍세일람」, 1955.
④ 속초읍, 「읍세일람」, 1959. ⑤ 양양군, 「통계연보」, 1962.

~ 그 이후 꾸준한 인구 증가로 1973년은 인구 75,968명으로 시 승격 이후 **최고의 수치**를 보인다.

⇒ 그 이후 1971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여 1973년 75,968명까지 증가했다.

339쪽. 위에서 9째줄 단어 추가, 15째줄 문장 수정

동우대학 인근에 도평리 **마을** 새롭게 조성된 것도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마을이

장사동 지역은 **1968년 동해안 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주민 140세대가 당시 토성면 사진리(현 장사동)에 집단 정착하여 인근의 사진마을 원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

장사동 지역은 어로지진선 남하에 따른 이주 및 1968년 동해안 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

344쪽. 아래에서 4째줄 문장 수정

코로나바이러스19 유행과 고층 건물 건설,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 향상, 동서고속철도·동해북부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2019년부터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지는 등 순이동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19 유행과 고층 건물 건설,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 구간 개통 및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 향상, 동서고속철도·동해북부선 개통에 ~

366쪽. 참고문헌 해당관련 발행처 동일하게 수정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외, 속초문화원, 『속초도시변천사 I』, 2020.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외, 『속초도시변천사 I』, 속초문화원, 2020..

367쪽. 아래에서 3째줄, 홈페이지 수정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www.sokcho.go.kr/portal>)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www.sokcho.go.kr>)

東草市誌 1

Ⅱ. 역사

正誤表

| | |
|----|--------|
| 1권 | Ⅱ . 역사 |
|----|--------|

371쪽. 위에서 7째줄, 11째줄, 14째줄 단어 추가 및 아래 사진 설명 단어 추가 수정

속초지역의 주요 하천으로는 쌍천(雙川), 청초천(靑草川), **장천(章川)** 등이 있다. 설악산 일대에서 발원하는 쌍천은 시 최남부에 위치하며 ~ 그리고 설악산 울산바위 북쪽 부근에서 발원하는 **장천(章川)**은 시의 최북부에 위치하여 학사평(鶴沙坪)을 지나 영랑호(永郎湖)에 ~ 특히 속초지역의 주요 하천인 **장천**과 청초천의 하구 부근에는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 사취 또는 사주가 만입(灣入)을 막아 영랑호, 청초호 등과 같은 자연 석호(潟湖)가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지형과 경관을 이루고 있다.

⇒ **장천천(章川川)**



속초지역 북부의 **장천** · 영랑호와 그 주변 (Daum 지도)

⇒ **장천천**

373쪽. 아래에서 12째줄 단어 추가

태백산맥의 설악산 주변 내륙산간 지역 일대에서 발원하여 동해에 흘러드는 **장천** · 청초천 · 쌍천 등의 주요 하천들이 형성되어 있다.

⇒ **장천천**

399쪽. 위에서 2째줄, 명칭 수정

2015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돌화살촉 1점이 출토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 **예맥문화재연구원**

405쪽. 위에서 14째줄, 지명 수정

강릉 경포호 주변의 교동유적, 강릉 남대천 주변의 **입암동**유적, 동해 전천 주변의 지흥동 · 효가동유적, 삼척 오십천 주변의 성남동유적, 삼척 호산천 주변의 호산리유적 등이 있다.

⇒ **입암동**

407쪽. 위에서 8째줄, 주소 수정

2) 조양동 취락유적(朝陽洞 聚落遺蹟)

이 유적은 조양동 산142-8번지 일원으로서 청초호와 남쪽으로 인접한 남쪽으로 인접한 해발 30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다.

⇒ 1529번지

416쪽. 아래에서 5째줄, 법정 명칭으로 수정

당시 조사된 1호 고인들의 덮개들은 사적으로 지정된 조양동 선사유적지 내에 이전되어 보존하고 있다.

⇒ 조양동 유적

421쪽. 아래에서 8째줄, 법정 명칭으로 수정

서쪽 주변가까이에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와 바다 그리고 산림 등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환경으로 인해 ~

⇒ 조양동 유적

432쪽. 위에서 2째줄, 지방제도 수정

옛 고조선 지역에 낙랑군(樂浪郡) · 진번군(眞番郡) · 임둔군(臨屯郡) 등 3개의 현을 설치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현토군(玄菟郡)을 추가로 두었다.

⇒ 군

454쪽. 위에서 3째줄, 문장 수정

이성계와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에 반대한 창왕(昌王)과 이색(李穡)·정몽주 등 보수세력을 제거하고 1392년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로써 약 475년간을 유지했던 고려왕조는 멸망하게 된다.

⇒

이성계와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에 반대한 이색(李穡)·정몽주 등 보수세력을 제거하고

495쪽. 위에서 9째줄, 아래에서 4째줄 지명 및 단어 수정

이 가운데서 원주목과 강릉부가 각각 21개면과 20개면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춘천·양부·삼척 순으로 이어진다.

⇒ 양양

상·하도문리가 도문리로 합병, 사야지진리·사야지리가 각각 사진리(沙津里)·사촌리(沙村里)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사진리로 합병되는 등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

⇒

상·하도문리가 도문리로 합병, 사야지진리·사야지리가 사진리(沙津里) 등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

561쪽. 위에서 16째줄, 단어 수정

신흥사에 용성전이 건립된 것은 정성왕후와의 인연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인연으로 이후 신흥사는 정조의 추복 사찰이 된다.

⇒ 용선전

562쪽. 위에서 13~15째줄, 단어 삭제 수정

1965년에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가 되어 양양속초강릉 등지의 사암(寺庵)을 관장하고 있다.

⇒ ‘강릉’ 삭제

1965년에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가 되어 양양속초 등지의 사암(寺庵)을 관장하고 있다.

신흥사에는 계조굴(繼祖窟)·내원암(內院庵)·소림암(少林菴)·보현사(普賢寺) 등의 부속 사암(寺庵)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소림암과 보현사는 폐하여 운영되지 않았고, 계조암과 내원암은 사세가 유지되었다.

⇒ ‘보현사(普賢寺)’ 삭제

신흥사에는 계조굴(繼祖窟)·내원암(內院庵)·소림암(少林菴) 등의 부속 ~

567쪽. 위에서 5~8째줄, 단어 수정

그리고 설악산 일대의 풍광을 읊은 「현산십삼영(峴山三十詠)」을 짓는다. 이중 비선대에서 폭포를 보고 지은 「비선층담(飛僊層潭)」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현산십삼영」은 이해조(李海朝)도 짓는다. 이해조는 1709년 양양부사로 부임하여 김창흡과 함께 설악산 일대를 유람하며 감흥을 서로 주고받았다. 김창흡은 이해조의 「현산십삼영」을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풍격(風格)을 만든 대표적인 ~

⇒ ~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 ~ 「현산삼십영」, ~ 「현산삼십영」 ~

582쪽. 위에서 6째줄, 한자 수정

신종원 편, 『朝鮮志地誌資料』 강원도편, 경인문화사, 2007.

⇒ 朝鮮地誌資料

585쪽. 위에서 14~16째줄, 날짜 수정

1894년 5월 27일 청나라 군사 2,500명이 아산만(牙山灣)에 상륙했고, 5월 9일에는 일본군 7,000명이 인천에 상륙했다. 이는 갑신정변 당시 맺은 텐진조약[천진조약(天津條約)]에 의한 것이었다. 6월 23일 아산만 입구에서 일본군이 청 수송선을 격파하는 것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됐다.

⇒

1894년 6월 8일 청나라 군사 2,500명이 ~ 상륙했고, 6월 9일에는 일본군 7,000명이 ~ 텐진조약[천진조약(天津條約)]에 의한 것이었다. 7월 25일 아산만 입구에서 ~

596쪽. 위에서 18째줄, 문장 수정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1월 20일 개헌안을 상정하고, 27일에 표결에 부친 결과 203석 중 개헌정족수(2/3 이상)에 1표가 모자란 135표가 나와 부결됐다. 그러나 정부는 29일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를 통해 135.33 3...표가 136표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개헌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자유당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어 사사오입으로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 11월 28일 자유당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적인원 125명 중 123명의 동의로 통과, 국회는 곧바로 개정헌법을 정부로

이승하고 정부가 당일 공포하여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601쪽. 위에서 20째줄, 27째줄, 단어 수정

당시 동로군이 사용한 총은 스나이더 소총이었고, 제18대대가 사용한 총은 스나이더 보다 최신식 무기인 무라다 소총이었다.

⇒ 스나이더 소총

이 중 영동지역 동학농민운동 관련 유적(강릉·고성 등)은 강릉 관아터(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농민군이 점령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한 곳), 강릉선교장(강릉 민보군을 지휘했던 이회원의 집), 강릉여중(농민군 처형지), 고성 왕곡마을(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 1리 322-3) 등이 있다.

⇒ 이회원

602쪽. 아래에서 4째줄, 지명 한자 수정

이 중에서 양양 도문면(道門面)·소천면(小川面) 의병 활동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으나, 후기 의병기 양양지역의 의병 활동은~

⇒ 소천면(所川面)

602쪽. 내용 추가 수정(수정원고 기 반영)

⇒ 1896년 을미의병, 1907년 정미의병

604쪽. 위에서 6째줄, 11째줄, 15째줄 문장 수정

1) 사립학교 설립운동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기자 조선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니, 실력양성을 해야 한다는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1910년 5월 말 공식 인가를 받은 학교는 200여 개에 이르렀다.

⇒

을사늑약 이후 본격화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전개된 국권회복운동 가운데 문화적 방법을 통한 실력양성을 도모한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1910년 5월 말 ~

남궁억은 1863년생으로 동문학에 영어를 배운 후 통역을 맡았다. 별군직(1889년), 칠곡부사~

⇒ ~ 동문학(同文學)을 수료하고 해관(海關)의 견습생으로 있다가 ~

1905년 3월부터 1907년 9월 성주목사 및 양양군수로 재직했다. 이 시기 현산학교 개교를 주도했다.

⇒

1905년 3월 성주목사로 부임, 그 해 11월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사임한 뒤 귀경하였다. 1906년 2월 양양군수에 임명되자 애국계몽운동에 참가하였고, 1907년 7월 양양의 현산학교(峴山學校)를 설립하고 구국교육을 실시하였다.

606쪽. 아래 인용문 내용 중

리목동(강원도 속초시 이목리, 현 노학동), 신흥(강원도 속초시 장정리, 현 노학동) 두 작은 교우촌이 있는데, 각각 8명의 어른들이 성사를 받으러 이리로 왔다. 20명의 견진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준 후 오후에

견진 참고를 했다.

⇒ **확인중**

607쪽. 위에서 12~14째줄, 내용중

이사일은 블라두를 죽이겠다 위협했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런데 블라두의 태도는 강경했다. 블라두는 하인에게 **이사두**의 집을 부숴버리라고 시켰고, 이사일은 결국 양양부사를 찾아가 이를 알렸다

⇒ **확인중**

609쪽. 내용 추가 수정(수정원고 기 반영)

오전 11시 강현면 물치리 물치 시장에서 기독교인 60명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이재훈이 주도하여 500명이 도천면 대포경찰관주재소로 이동하여 시위했다.

⇒ **추후 입력**

609쪽. 쪽 아래 판결문 인용, 단어 수정

피고 능렬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할 의사가 계속하여 1918년(대정 8) 4월 4일 밤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李鍾國) 방에서 차압된 태극기 2폭을 작성하고 동 **이민** 수명에 대하여 명 5일 동군 **봉현면(峰峴面)** 물류(物溜) 시장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겠음에 대해서 여기 참가하라고 선동하고, ~

⇒

피고 능렬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할 의사가 ~ 태극기 2폭을 작성하고 동 **리민(里民)** 수명에 대하여 명 5일 동군 **강현면(降峴面)** 물류(物溜) 시장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겠음에 ~

615쪽. 아래 1째줄, 문장 수정

도천면 노동조합으로는 1927년 6월 13일에 물치차부조합이 조직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물치차부조합도 조직되었다

620쪽. 위에서 7째줄, 16째줄, 19째줄, 단어 수정

속초리의 **어업조합** 파업은 대포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 **어민조합**

1933년 6월 4일 양양군 농민조합을 포함하여 지부 14개를 습격하고 300명의 다수 청년을 ~

⇒ 1932년

양양경찰서는 대포항 **어업조합** 관계자 검거와 함께 서류를 압수했고, 이학규 외 5~6명을 ~

⇒ **어민조합**

[표] 도천면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인물 ⇒ 대포노동 · 어민조합 활동 및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인물

622쪽. 인용문 내용 중, 문장 수정

라봉석: 어부로 사회주의자다. 대포어민조합 정기총회 의장을 맡았고, 원산맹과사건 당시 최육김동기·오

일영(이상 양양농민조합)·이학규·정주복(대포조민조합)과 함께 원산 노동파업을 보조했다.

⇒

라봉석: 대포어민조합 정기총회 의장을 맡았고, 원산맹파사건 당시 최옥·김동기·오일영(이상 양양농민조합)·이학규·정주복(대포어민조합)과 함께 원산 노동파업을 보조했다

이상철: 사회주의자이다. 신간회 양양지회 집행위원을 맡았다. 대포노동조합 정기대회 위원을 맡았고, 양양청년대회 도천지부, 강릉지부 정기총회에 참여했다. 또 **양양청년동맹 강릉지청 위원장**을 맡았다.

⇒

이상철: 신간회 양양지회 집행위원을 맡았다. 대포노동조합 정기대회 위원을 맡았고, 양양청년대회 도천지부, 강릉지부 정기총회에 참여했다.

625쪽. 아래에서 4째줄, 단어 수정

대포항 발전이 1910~20년대의 도천면을 대표하는 항구였다면 1930년대를 전후하여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항구는 속초항이었다.

⇒ **대포항이**

626쪽. 위에서 8째줄, 문장 수정

(1) 속초항 1기 공사

속초항이 철광 반출항으로 결정되면서, 설비 확장 논의가 시작됐다. 『강원도 중단 답과기』에 의하면 1917년 당시 양양군 내에는 금·은·철광이 있었는데, 양양군에는 20여 개소의 철광구가 발견됐다. 마침 철광 개발이 시작됐고, 이를 반출할 항구를 모색 중에 있다가 **속초항이 반출 항구로 결정된 것이다.**

⇒:

속초항이 철광 반출항으로 결정되면서, 설비 확장 논의가 시작됐다. 『강원도 중단 답과기』에 의하면 1917년 당시 양양군 내에는 금·은·철광이 있었는데, 양양군에는 20여 개소의 철광구가 발견됐다. 마침 철광 개발이 시작됐고, 이를 반출할 항구를 모색 중에 있다가 **속초항이 주목 받았다.**

627쪽. 아래에서 3째줄, 지명 수정

양양면 1,100원·강현면 1,550원·도천면 1만 7,500원·토성면 2,460원·죽왕면 1,460원·서면 590원·**보양면** 1,040원·현북면 960원·현남면 840원 계 3만 원으로 도천면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기로 했다.

⇒ **손양면**

629쪽. 위에서 5째줄 문장 수정, 아래에서 2째줄, 지명 수정

위와 같은 속초 축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36년 3월 경에 1차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사는 속초항의 구체적 공사 계획안을 보여주는 기사다.

⇒

위와 같은 속초 축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속초항 1차 공사는 1937년 3월 31일 준공되었다.** 다음의 기사는 속초항의 구체적 공사 계획안을 보여주는 기사다.

이에 드는 총 공사비는 60만 원을 예상했다. **속초시민**은 청초호 축항도 포함되기를 염원하였는데, 다음의 기사가 자세하다.

⇒ 도천면민

630쪽, 위에서 6째줄 단어수정, 아래에서 9째줄 문장 수정

“속초항 내지 **청초호**은 전 세계적인 호수로 미국의 미시시피 호수에 버금가기 때문에 배 한 척이 50평의 면적을 요구해도 이 호수 내에 500척90의 배를 정박,~

⇒ 청초호는

그리하여 이 축항 문제를 선결로 철저히 제창하기는 현 면장직에 있는 박상희(朴祥禧)씨의 도 의사로부터 역입한 이들의 꾸준한 활동으로 총 공사비 39만 원의 거액으로 제1기 공사를 지난 소화 7년(1932) 11월에 성대한 기공식을 비롯하여 ~

⇒ 도지사에게 건의로부터 그 외

631쪽, 위에서 12째줄 단어수정

속초항의 내항 청초호는 51만 5,000평 여의 큰 호수로 그 주위는 토사(土砂)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된 때에 직접 매립할 생각으로 지역민의 요망에 따라 2개년간 완성 계획을 세워 이번 회 그 예산과 구체적 계획을 강원도회 승인을 얻기 위하여 속초항 지역 5천 주민은 이른 아침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분으로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 강원도의

632쪽, 위에서 1째줄, 4째줄, 단어 및 지명 수정

초항 매립공사는 1940년 봄에 결정되어 공사비가 11만 원으로 결정됐다.

⇒ 속초항

일제는 연 30만 톤의 철 반출을 목표로 양양군 서명 장승리 도목정(桃木亭)-양양읍 철도 부설 10km 소요 경비 150만 원 가량을 예상했다.

⇒ 서면

633쪽, 위에서 1~3째줄, 문장 수정

속초항 기공과 함께 주변에는 건물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조선인 관리 중 도천면 속초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무소를 건설했고, 화약고 신축, 기타 축항 준비를 위한 사람들이 7~80명이 모인 파출소를 신설하여 속초항 주변이 활황을 이루었다.

⇒

속초항 기공과 함께 주변에는 건물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조선인 관리 중 도천면 속초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무소를 건설했고, 화약고 신축, 기타 축항 준비를 위한 인부들이 각지에서 7~80명이 유입되는 한편 경찰에서도 파출소를 신설하는 등 속초리 주변이 활황을 이루고 있다.

635쪽, 위에서 13째줄, 아래에서 10째줄, 단어 수정

속초는 오징어의 명물 청어의 본고장, 정어리·청어의 염장·해의 수출·기선(汽船)의 기선(奇船)·경춘 철도의 종점·지하자원이 잠깐 금은 철광·제2기의 축항·매립되어 추가 저공로 산자수명(山紫水明) 풍광절기(風光絶佳)의 지장(地漿), 오는 강원도에는 제일의 양호한 일은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것

이다.

⇒

~ 해외 수출·기선(汽船)의 기항(奇港)·경춘철도의 종점·지하자원이 잠깐 금은 철광·제2기의 축항·매립되어 추가적으로 산자수명(山紫水明) ~

새 수도 청도 방면에 주로 수송하고, (중간 보이지 않음) 낚시를 해서 야간 항내에 그믐달 빛이 드리우면 파도 사이에 보이는 숨은 수백 마리의 어화(漁火), ~

⇒ 그믐달

638쪽, 아래에서 10째줄, 3째줄, 단어 수정

경성에 거주하는 광산 김씨는 주위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매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도전창미는 차라리 영랑호를 국립공원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신문에 남긴 바 있다. 도전창미는 영랑호 일대에서 일주일간 지낸 일들을 글과 그림으로 남겨 이에 대한 감상을 표현했다. 속초항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방파제가 계속 건설되어 등대(燈台)가 설치됐고, 밤에는 이 등의 아래에서 낚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매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도전창미는 ~ 따라 방파제가 계속 건설되어 등대(燈台)가 설치됐고, 밤에는 이 등의 아래에서 낚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639쪽, 2전째 사진 설명 수정, 아래에서 2~6째줄, 숫자 및 문장 수정



1940년대 영랑호 영금정 일대

⇒ 1940년대 영금정 일대

속초항 주변은 조선인 231호 2,120명·일본인 39호 107명·중국인 4호 13명 등이 거주하여, 호수는 596명, 인구는 2,240명에 달했다. 인구는 700여 호가 증가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들로 4할 이상이 결방살이를 하는 이들이고, 술집 작부도 40여 명이나 됐다.

⇒

속초항 주변은 조선인 231호 2,120명·일본인 39호 107명·중국인 4호 13명 등이 거주하여, 호수는 274호, 인구는 2,240명에 달했다. 이후 2년 뒤 호수는 700여 호가 증가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

638쪽, 위에서 15째줄, 문장 수정

당시 속초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일 3~40전 임금으로 노동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1935년 9월 11일 당국에 제2 공사를 시작하여 주민들이 연명할 수 있게끔 요청했다.
⇒ 속초항 제2기 공사를

641쪽, 위에서 10째줄, 아래에서 5째줄 문장 수정

금일 설치는 최초로 초미의 문제로 과반수의 유지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로 종래 행한 비용 대포 협장(狹場)씨는 즉시 사무소를 건축했고, 조건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속초번영에 따라 건축비의 일부 보조 명목으로 10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

금일 우편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초미의 문제로 과반수의 유지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이며 종래 행한 비용으로 대포 협장(狹場)씨는 즉시 사무소를 건축하기로 했고, 조건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속초번영에 따라 건축비의 일부 보조 명목으로 10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속초출장소에는 경관이 2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은 그 생업에 만족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대포어업조합은 5월에 7,000원을 들여 청초호반에 신축사무소를 이전하고 현재 대포에 있는 도천면사무소도 속초로 이전하기 위해 사무소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금융조합, 수산조합, 대포지부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

현재 속초출장소에 경관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주민은 그 생업에 만족하고 있지만,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그에 따라 대포어업조합은 5월에 7,000원을 들여 청초호반에 신축사무소를 이전하고 현재 대포에 있는 도천면사무소도 속초로 이전하기 위해 사무소신축공사를 시작했다. 금융조합, 수산조합, 대포지부도 속초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644쪽, 문장 수정

4) 도로건설

일제강점기 1911년 4월 「도로규칙」을 발표하여 도로를 1~3등과 등외로 구분했다. 1·2등 도로는 국도, 3등 도로는 지방도로, 그 이외는 등외로 표기했다.

초기에는 인제로 가는 도로 개축이 최대의 급무였다. 그리고 도천면·미시령을 잇는 도로 건설을 위해 도 천민들의 부설청원이 다년간 있어왔다.

⇒

1911년 4월 「도로규칙」을 발표하여 도로를 1~3등과 등외로 구분했다. 1·2등 도로는 국도, 3등 도로는 지방도로, 그 이외는 등외로 표기했다. 1927년 8월 16일자 중의일보에 의하면, 초기에는 인제로 가는 도로 개축이 최대의 급무였다. 그리고 도천면·미시령을 잇는 도로 건설을 위해 도천민들의 부설청원이 다년간 있어왔다.

647쪽, 인용문 5째줄의 주석 159 문장 수정

봉투는 우편국에 호의로 마을에서 보스토(ポスト) <주석159> 로 오고 가는 편리함이 있다.

주석159) 보스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다.

⇒ 포스트(포스트), 郵便箱, 郵便受け 포스트(POST), 우편함, 우체통

봉투는 우편국에 호의로 마을에서 포스트(ポスト) <주석159> 로 오고 가는 편리함이 있다.

주석159) 포스트(POST, 우편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648쪽, 사진설명 수정



1938년 도천면 우편소로 사용되었던 1950년대의 속초우체국

⇒ 1950년대 속초우체국

648쪽, 아래에서 5째줄, 문장 수정

8) 어업

속초시의 어업은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대포어업조합은 대포항을 중심으로 하여 도천·강현·양양·손양 4개 면 어업자 569명으로 1927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34년 구역을 확장하여 1935년 어획고는 12월 중순까지 30만 7,520원에 달했고, 그 대부분은 조합에서 위탁판매로 판매했다. ~

⇒

속초시의 어업은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도천면어업조합, 대포어업조합, 속초어업조합 등이 등장하나, 도천면어업조합(1923) → 대포어업조합(1933) → 속초어업조합(1937)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명칭별 활동을 신문에서 보도된 바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포어업조합은 1934년 구역을 확장하여 1935년 어획고는 12월 중순까지 30만 7,520원에 달했고, 그 대부분은 조합에서 위탁판매로 판매했다. ~

649쪽, 아래에서 2째줄, 단어 수정

영랑초등학교 증축기금 7,000원, 속초항관주재소 건축기금 4,000원, 설악국민학교 300원, 대포국민학교 미싱 1대 구입비로 300원, 도합 1만 1,600원을 기부했다.

⇒ 영랑국민학교 ~ 미싱(재봉틀)

658쪽, 용어 일관성 6·25한국전쟁

제5절 한국전쟁

⇒ 제5절 6·25 한국전쟁

661~662쪽, [표] 아래부분의 토치라이트부대 편집오류 수정

[표] 동해안 유격부대의 활동과 간부

| 부대명 | 활동 | 간부 |
|----------------------------------|--|---|
| ~ | ~ | ~ |
| 토치라이트부대 (Torchlight Regiment) | - 1952년 2월 창설 - 1953년 1월 말 556명 속초 주둔, 40명 서울 주둔 (부대 약 600여 명), 공수훈련, 심리전 학교 교육, 목표는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 침투 | - 장헌일(초대 부대장) - 선우진(부대장)(미8240부대 통역장교)와 갈등 이동석 부대장 취임 후 장헌일 속초 떠남 - 작전과장 김관술 - 정보과장 이광성 - 보급과장 민병철 - 정훈과장 위인찬 - 제1중대장 신재성 - 제2중대장 황대성 - 제3중대장 김응기 |

출처: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495~510쪽

672쪽, 인용문 아래에서 6째줄, 문장 수정

영랑동 일대는 미 70수송대 본부가 있었고, 동명동 역사에는 미육군 수송부도 본부와 클럽이 있었다.

⇒

동명동 역사는 미군항만사령부(ATC)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다.

675쪽, 사진 설명 수정



1953~54년 실향민 주택 건립 모습(좌)과 공동우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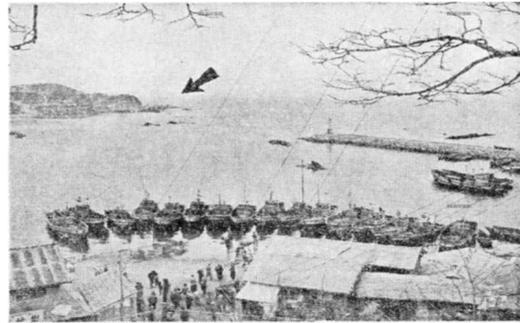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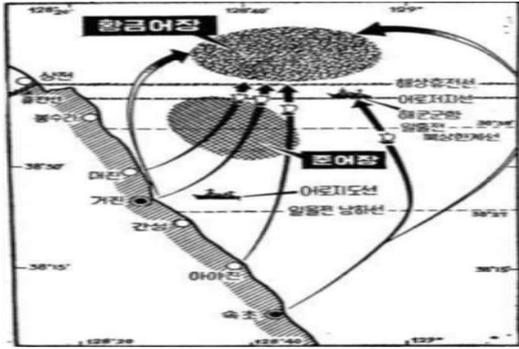
⇒ 1953~54년 실향민 주택 건립 모습(좌)과 공동우물(우)

658쪽, 위에서 4째줄, 단어 수정

직업을 살펴보면, 민선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함남 단천군 출신 동문성, 강원도회 의원을 역임한 이관희 등을 비롯하여 약사·건축가·사업가 등이 다수 있었다.

⇒ 강원도의회

684쪽, 사진 설명에서 지명 수정



<대포항에는 우리사람들이 낚잡의 횡포 남태웠는 사죄당점으로, 이후그당 때부터 알뜰한 낚이선 아래에 보이는 곳 (1표)이 최남한경-수령선 그너머가 바로 「어로저지선」이러함

해상휴전선과 어로저지선(「동아일보」 1966년 1월 8일 3면 3단)

대포항에서 보이는 어로저지선(화살표)(「동아일보」 1966년 1월 27일 7면 1단)>

⇒ 대진항

687쪽, 아래에서 3째줄, 명칭 수정

이날 오전 춘천법원 속초지청은 1967년 12월 26일 밤에 귀환한 남북 어부 64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전원 입건 조사했다.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687쪽, 위에서 3째줄, 아래에서 5째줄, 표기 수정

김호섭(金浩燮)(59, 고성군 육암면)은 북한노동당원으로 ~

⇒ 김호섭(金浩燮, 59세, 고성군)

김창래(金昌來)(32, 속초시 중앙동)·선주 정홍철(鄭弘喆)(37)·김수덕(金洙德)(22)·박용택(朴容澤)(31)을 「수산업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

김창래(金昌來, 32세, 중앙동)·선주 정홍철(鄭弘喆, 37세)·김수덕(金洙德, 22세)·박용택(朴容澤, 31세)을 「수산업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687쪽, 아래에서 12째줄, 명칭 및 문장 수정

그런데 1972년 6월 2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남북귀환 ~

⇒ 춘천지방법검찰청 속초지청

그런데 1972년 6월 23일 춘천지방법검찰청 속초지청은 남북귀환어부 이종호(31) 등 17명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1970년대 신문에 보이지 않으나, 2021년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창동호 어민들을 불법 구금한 뒤 고문을 가했고, 허위자백을 토대로 간첩혐의를 적용,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했다. 유족들은 2014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11억 2,180여만 원 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기소된 인원은 17명이지만, 피해입은 어민은 6명으로 보이며, 이들은 현재 모두 사망했다. 남북과정에서 사망한 1명, 귀환 후 사망한 5명 가운데 1명, 총 2명의 유족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석(277)속초지원, '동해안 남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국가배상책임 첫 인정", 「법률신문」 2011년 11월

12일자.

⇒

그런데 1972년 6월 23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남북귀환 어부 이정호(31) 등 17명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1970년대 신문에 보이지 않으나, 2021년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창동호 어민들을 불법 구금한 뒤 고문을 가했고, 허위자백을 토대로 간첩혐의를 적용,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11억 2,180여만 원 배상 소송을 냈다. 2021년 법률신문 보도에 의하면 당시, 기소된 인원은 17명이지만, 피해 입은 어민은 6명으로 보이며, 이들은 현재 모두 사망했다. 남북과정에서 사망한 1명, 귀환 후 사망한 5명 가운데 1명, 총 2명의 유족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6일 이후 재심 신청 후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일부 선원은 재심 진행 중이다.

주석277) “속초지원, '동해안 남북 어부 간첩조작 사진' 국가배상책임 첫 인정”, 「법률신문」 2021년 11월 12일 자.

694쪽, 위에서 4째줄 인명 수정, 6째줄, 문장 수정

엄경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승운호·제6해부호·제2승해호·대북호·명성3호에 탄 31명의 어부들은 각각 구타·무릎 꿇기·손가락 고문·물고문·고춧가루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 엄경선

그리고 엄경선이 입수한 1969년 5월 28일 귀환 어부 150명 보고서(1976년 3월 31일 작성)를 보면, 주변 지인들을 협조망으로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도 있었고 개인사생활까지 전부 수집했다.

⇒

그리고 엄경선이 2023년 2월 7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69년 5월 28일 귀환 어부 150명 보고서(1976년 3월 31일 작성)를 보면, 주변 지인들을 협조망으로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도 있었고 개인사생활까지 전부 수집했다.

695쪽, [표] 년도 수정

[표] 신문자료에 확인되는 속초 출신 혹은 관련 구속된 남북어민>

| 이름 | 나이 | 주소 | 어선 | 남북일 | 구속일 |
|----------|----|---------|----------|---------------------------|------------------------|
| ~ | ~ | ~ | ~ | ~ | ~ |
| 김성진 | | | 용진호 | | 1868.3.13. (징역 6개월) |
| 김유용 | | | | | 1868.3.13 (징역 8개월) |
| 김인수(金仁洙) | 40 | 속초시 청학동 | 제창호(濟昌號) | 1968.1.6. | 1868.4.10. |
| 한덕득(韓德得) | 32 | | 제2덕수호 | | 1868.10.13. |
| 배관이(裵寬伊) | 32 | | 제2덕수호 | | 1868.10.13. |
| 이동근(李東根) | 51 | 속초시 청학동 | | 1964.12.4. 1965.11.29. | 1869.2.25. (간첩 혐의) |
| 남중돈 | | | 제3명성호 | 1971.8.2. | 1872.9.8. |
| 김재원 | 46 | 속초어협 | 해부호 | 1871.7. | 1872.9.7. |
| 김정발 | 65 | 속초어협 | 제2승해호 | | 1872.9.15. |

[표] 신문자료에 확인되는 속초 출신 혹은 관련 구속된 납북어민>

| 이름 | 나이 | 주소 | 어선 | 납북일 | 구속일 |
|----------|----|---------|----------|---------------------------|------------------------|
| ~ | ~ | ~ | ~ | ~ | ~ |
| 김성진 | | | 용진호 | | 1968.3.13. (징역 6개월) |
| 김유용 | | | | | 1968.3.13 (징역 8개월) |
| 김인수(金仁洙) | 40 | 속초시 청학동 | 제창호(濟昌號) | 1968.1.6. | 1968.4.10. |
| 한덕득(韓德得) | 32 | | 제2덕수호 | | 1968.10.13. |
| 배관이(裵寬伊) | 32 | | 제2덕수호 | | 1968.10.13. |
| 이동근(李東根) | 51 | 속초시 청학동 | | 1964.12.4. 1965.11.29. | 1969.2.25. (간첩 혐의) |
| 남중돈 | | | 제3명성호 | 1971.8.2. | 1972.9.8. |
| 김재원 | 46 | 속초어협 | 해부호 | 1871.7. | 1972.9.7. |
| 김정발 | 65 | 속초어협 | 제2승해호 | | 1972.9.15. |

695쪽, 아래에서 4째줄, 문장 일부 삭제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조직, 양양읍면에는 치안대가 설치됐다. 수복되기는 했지만, 1년간 미군정이 통치했다. 1950년 10월 12월 유엔결의안에 의거 하여 유엔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했고, ~

⇒ ‘수복되기는 했지만, 1년간 미군정이 통치했다.’ 삭제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조직, 양양읍면에는 치안대가 설치됐다. 1950년 10월 12월 유엔결의안에 의거 하여 유엔군이 ~

696쪽, 사진 설명 수정, 각주 284) 인명 수정



1961년 당시 수복탑(국가기록원)

⇒ 1961년 당시 수복기념탑(국가기록원)

[각주] 284. 엄경섭, 앞의 책, 2019, 35쪽.

⇒ 엄경선

695쪽, 아래에서 9째줄, 지명 수정

(1) 도로

1953년 12월 31일 원통령-대관령-간성 도로를 원통리-속초로 직선화 시키는 도로 개통이 이루어졌다.

⇒:

1953년 12월 31일 원통리-진부령-간성 도로를 원통리-속초로 직선화 ~

698쪽, 위에서 17째줄, 아래에서 5째줄, 문장 수정

1974년 속초에서 포항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은 2023년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 1974년에 계획 수립된 속초에서 포항까지의 ~

상공부는 양양 산원에서 속초항간 경편철도 부설을 위한 소요자재 대여를 요청했다.

⇒ 상공부는 양양에서 속초항간 경편철도 ~

698쪽, 위에서 5째줄, 문장 수정

1969년 1월 11일 설립된 속초공항은 1961년 군용 비행장으로 열게 되었지만, 1969년 대한항공이 취항하며 민간공항이 됐다.

⇒

1969년 1월 11일 설립된 속초공항은 1961년 군용 비행장으로 열게 되었지만, 1967년 8월 7일 극동항공이 취항했고, 1969년 대한항공이 취항하며 민간공항이 됐다.

698쪽, 위에서 3째줄, 명칭 수정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단은 “좁은 안전지대에 지하 기름 창고, 헬리콥터 이륙장을 만들 경우에 위험하다.” 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됐다.

⇒ 서울지방항공청

698쪽, 참조문 3째줄, 지명 수정

강릉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각주를 달았으며, 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각주를 달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 속초